



원청교섭

비긴즈

2026-
3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8.12.(수)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 금속노조

"나와라, 현대모비스"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원청에
성실 교섭 이행 촉구**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원청교섭 단위들이 8월 11일 서울 강남 현대모비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모비스에 원청교섭 성실 이행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 현대모비스는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며 "25개 지회 소속 7,375명 조합원의 단결된 의지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 사장 쟁취 투쟁의 출발점에 서있다"고 강조했다.

**현대모비스 노동자들,
원청교섭 요구
파업절차 돌입
진짜 싸움 시작!**

금속노조 현대모비스 원청교섭 단위들이 쟁의절차에 돌입한다. 현대모비스천안지회와 현대모비스평택지회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현대모비스광주지회 12일, 현대모비스아산지회 19일 등 현대모비스 지회들은 12일(수)부터 21일(금)까지 원청을 상대로 쟁의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현재 현대모비스 원청은 금속노조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중노위, 제 역할해라"
**중노위, 현대차 원청교섭
재심 심문회의 개최**

금속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자동차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대상과 교섭의제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10일 오전 세종시 중앙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노위는 비상식적인 울산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바로잡고, 원청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중노위는 이날 오후 현대차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회의를 열었다. 중노위는 14일과 21일 두 차례 추가 심문회의를 열 예정이다. 중노위는 현대차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동자들 업무를 ▲생산 ▲판매 ▲보안·미화·식당 등으로 나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100% 비정규직 공장, 원청교섭으로 민주노조 건설!”



심인호 기아자동차지부 동희오토분회장

동희오토는 한국 최초 생산직 전원 100% 비정규직 공장입니다. 기아차를 만들지만, 기아차 소속도 아니고, 동희오토 소속도 아닌, 11개 사내하청 소속 노동자들입니다. 동희오토 하청노동자들은 긴 시간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투쟁했습니다. 2005년 민주노조를 건설하자 사측은 어용노조를 만들고 대대적인 민주노조 탈퇴 공작을 감행했습니다. 노동자 부모님을 찾아가 구속을 위협하고, 임신한 배우자에게 ‘해고는 당연하고 앞으로 충남 땅에서 취업도 못한다’고 협박했습니다. 2008년에도 민주노조를 건설하려 하자 동희오토는 업체 폐업과 집단해고로 탄압했습니다. 끝없는 탄압으로 현장에서 민주노조는 소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민주노조 건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둔 3월 10일 동희오토분회는 원청교섭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며 조합원 120여 명을 공개했습니다. 동희오토 현장에서 민주노조를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민주노조가 확대되자, 역시나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조직적인 탈퇴 공작을 벌였습니다. 어용노조를 동원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금속노조 조합원을 힘든 공정으로 전환 배치하고, 업체 폐업 협박 등을 일삼았습니다. 그에 맞서 분회는 노동부 진정과 함께 불법행위에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청을 상대노동위 절차 마무리

지난 6월 17일 중앙노동위원회까지 원청교섭 교섭단위 분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희오토가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며, 어용노조와 민주노조의 교섭단위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6월 25일에는 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신청에 대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인용 결정도 이어졌습니다. 동희오토의 교섭거부가 명백한 불법·부당노동행위라는 것입니다. 동희오토를 상대로 한 원청교섭 투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측은 여전히 법원의 판단을 받자며 교섭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용노조는 사측을 비호하며 산업안전보건 의제로 교섭을 축소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온전한 원청교섭 쟁취 여부는 우리의 현장 투쟁으로 사측을 제압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탄압 돌파, 원청교섭 쟁취, 민주노조 건설

6월 말 사측 업체폐업 협박이 이어졌으나, 그 국면은 돌파했습니다. 사측의 교섭지연 꼼수에 따른 노동위 진정 절차도 점차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희오토분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함께 2026년 하반기 원청교섭 쟁취 투쟁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씻어낼 시간입니다.